

야고보서 33번째 말씀

선지자들과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본문 : 야고보서 5:10-11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농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인내의 본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고 있다.

1. 선지자들의 모범을 배우라.

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책망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 한 말을 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로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내려가서 바벨론의 왕의 명을 메고 그를 섬기고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예레미야 27:11).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섬길 수 있느냐하고 절대로 바벨론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바른 말을 한 예레미야는 말로 다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또한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 못을 지적하면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사 30:10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딤후 4:3-4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미가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이사야는 톱으로 켜

당했다. 스가라는 죽임을 당했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길이 참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5:10-12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인정 받지 못한 존재가 될 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 낸다면 가장 명예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눈에 띈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이런 삶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 준 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백 마디의 이론 보다 한가지 분명한 모범적인 행동은 우리가 배우기에 훨씬 좋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 따를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여 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 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다. **교회**는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목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본을 따를 것이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회에서 정직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볼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도의 모범, 말씀 사랑하는 모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범 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많은 교훈을 받아도 그대로 살 순 없지만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모범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큰 유산이다. 이 야고보서 강해의 주제는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 주는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욱의 인내를 배우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욱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서 언급된 고난의 인물들 가운데서 욥과 필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는 성공적인 농부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옥 불과 같은 재난을 당하였다. 한거번에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을 다 잃었다. 몸은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와 같은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아내의 비난, 그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비난이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위로를 해 주기는커녕 찾아와서 너는 죄 때문에 실패자라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 중에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친구란 자들이 와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꾸짖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욥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항상 너그럽게 참았는가? 아니다. 그는 분노를 발하기도 했고, 폭언을 하기도 했고, 회의와 갈등 가운데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불행을 견디어 냈고, 불행 속에서 불굴의 정신을 발휘했다. 물론 그는 때로는 의문을 제기 했고 강한 반발심도 들어 냈지만 믿음의 불꽃이 그 마음에서 꺼진 적이 없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 인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 할수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서 인내할 수 있다. 우리의 자원으로서 인내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레미야애가 3: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가 담대히 악에서 맞서 싸우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인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인내가 가져올 소망을 바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정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재림을 내다 보며 사는 삶이란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인내가 부족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재림시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된다. 오래 참음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상급을 받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 **농부처럼** 오래 참아야 한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선지자처럼**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진리를 외치며서 오래 참아야 한다, **욥처럼**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참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아야 한다. 그리할 때 재림 시에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예비 되어 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성공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오래 참으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자.